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진행에 대한 총참모부 보도

미국과 남조선의 무모한 군사적 위협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심각한 정세기류는 더욱 불안정한 대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남조선지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으로 핵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역대 최대규모의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되었다.

적들의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며 특히는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냥한 침략적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침략적인 군사훈련들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전적인 최근의 모든 움직임들은 무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결

결한 대응의지와 공화국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작전 1일 오전 평안북도지역의 미사일부대로 적들의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하여 서해갑문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와 지하침투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였으며

오전과 오후 동, 서해안연선의 공군 반항공미사일부대로 각이한 고도와 거리의 공중목표들을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 우리의 미사일이 랙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

도폭탄으로 우리측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지역 출신시일 80km 부근수역(위도 35° 29' 51. 6", 경도 130° 19' 39. 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민음성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광기를 짓궂게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작전 3일 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이 진행되었다.

작전 4일 적들의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하여 서해갑문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모든 대응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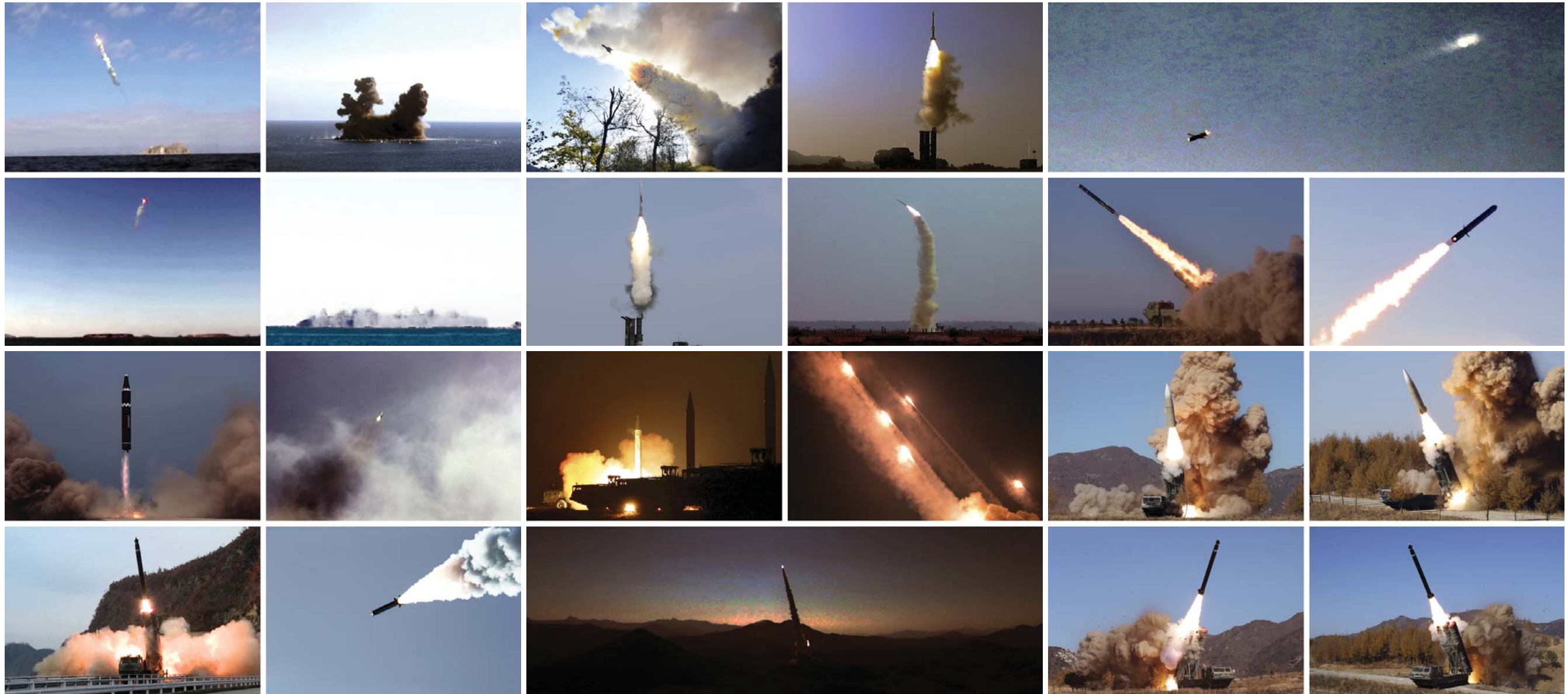
작전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무력은 적들의 연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며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수 있는 자신감을 높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실성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단행한 대응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것이라는 우리

의 명백한 대답으로 되며 이는 곧 앞으로 드립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원칙, 행동방향으로 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온갖

반공화국전쟁연습들에 지속적으로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군사조치들로써 대응해나갈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광란적인 전쟁대결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각일각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핵전략폭격기를 포함한 24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된 미국남조선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경계하는 폭풍》)이 실시되었다.

역대 최대규모로 감행된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며 특히는 공화국을 직접적인 타격목표로 겨냥한 침략적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특히 남조선에서 유색열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후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의식이 골수에 박힌 유색열역적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적》으

로 선포한데 이어 미국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의 재개 및 확대, 《확장적전력협약》제가동,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등을 합의하였는가 하면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라는 공조강화에 매달리었다.

미국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이 앞서서도 역적패당은 조선반도수역에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건》호라격적단을 끌어들이는데 이어 나흘간에 걸쳐 조선 동해상에서 미국과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으며 9월 30일에는 미국, 일본과의 연합반잠수함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10월 6일에는 조선동해수역에 떠났던 미핵항공모함 타격적단을 다시 끌어들이어 연합미사일방어훈련을 벌려놓았고 7일과 8일에는 해상연합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수위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이 기간 역적패당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를 내세워 공화국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로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내었다.

최근에도 유색열역적패당은 공화국의 정당한 군사적대응조치를 《도발》로 결고들며 북침전쟁연습인 《2022 태극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모든것은 유색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의 암적존재,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유색열역적패당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유색열역적패당의 무분별한 전쟁대결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 겨례는 너무나 오랜 세월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 미국과 친미사대매국세력에 의해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던 안이였으며 그 상층은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겨례의 가슴에 아프게 새겨져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터지면 첫째가는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례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과 관련하여 《전쟁이 현실로 될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 평화에 역행하는 무력시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색열(정부)는 군사적긴장과 대결, 대항사를 초래할수 있는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반미, 반전, 반유색열역적패당을 떨쳐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용당하다.

반미, 반전, 반유색열역적패당의 불길들 더 높이 지퍼올리는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내는 길이다. 온 겨례는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강력한 자위적투쟁을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공화국의 강력

한 힘이 있기에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다.

정의를 지향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공화국의 자위적투쟁을 적극 지지옹호하는것은 애국애족의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발현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없이 공화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불구름을 몰아오지만 그것은 전쟁과 대결로 유지해온 생존공간을 잃고 력사의 뒤길로 사라지게 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례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안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이다.



《공중우세》를 떠들며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간살육과 파괴민행을 감행하는 악의 제국이 바로 미국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미국은 수많은 비행기들을 내몰아 조선과 공화국후방에 출몰단을 퍼부어왔다. 당시 미국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전쟁도발 이후 330일동안에만 하여도 《B-29》 폭격기를 비롯한

들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미군직 승격적수사관들, 2003년 3월 공화국의 추격기비행사들이 15m까지 접근하여 조준태세를 취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미국의 《RC-135》전자정찰기... ◆ 남의 평화를 넘겨다보는 적대세력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함이 없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발광적으로 벌린것은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조선의 하늘은 공중비적들에게 여전히 무서운 죽음의 하늘로 되고있다. 적들의 침략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최강의 군대로 자라난 공화국군대는 실천적인 대응군사작전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것을 경고하였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어제도 오늘도 달라질수가 없다.

공중비적

우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공화국에는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없지 않다. 처녀어머니, 모성영웅어머니, 박사어머니, 방직공영웅어머니... 이 훌륭한 어머니들에게는 그들을 품어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몇해전 공화국에서 열렸던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보고 해외동포녀성이 쓴 글의 한 대목이다.

훌륭한 어머니들의 위대한 어머니.

그 위대한 어머니는 과연 어떤분이신가.

여기에 누가누가 즐겨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 어머니께 삼가 드릴 꽃송이 역으려니 손닿도록 쓰다듬어주며 키운 정 사무칩니다 비바람 불수록 날이 찼수록 께안아주시 때 눈비에 얼어든 어머니웃자락 왜 그리 따스했는지 심장을 불태워 날 안아 키워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

노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의 가사이다.

이 가사를 쓴 40대 초반의 교육자 최남순교수는 훌륭한 가사를 써내려 갔던 동기를 알고싶어 찾아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노래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온 나라 가정의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송가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뎨 그는 그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이 있어 자신은 청춘의 꿈이 꽃피기 시작한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지금까지 어머니없는 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고 하였다.

최남순교수의 생활에는 구석구석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있었다.

몇달전 황홀한 다락주주래구인 경주동에 삶의 보금자리를 편 그의 세집은 호화스러웠다.

찬양에는 색깔같은 그릇들이 가득차있고 넓고 정교한 방들마다에는 새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곱조각조각 갖추어져있었다.

최남순교수는 이 모든것은 다 위대한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것이라고, 그래서 찬양의 그릇까지 하나를 보아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뚝히 어려와 눈물을 적시곤

한다고 말하였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어준 어머니는 일찍 길을 떠나갔지만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자기를 인생의 최절정에까지 이끌어주었다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참으로 그러했다. 위대한 어머니 품, 당의 따스로운 품에서 그는 30대에는 박사로, 40대에는 교수로 자라났으며 지금은 최우수교원의 한사람으로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있다.

《나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귀뎡이 딸애의 두볼을 다독여주며 최남순교수는 말하였다.

《너는 꼭 훌륭하게 자라가.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생을 둔 자식은 누구든 다 엄마처럼 된단다.》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한없는 격정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사람은 최남순교수만이 아니다.

유복녀로 태어나 처녀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평범한 직공공무원장 손진경.

그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자라났으며 오

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전형으로 떠받들려오고있다.

수도의 한복판에 웅장한 건축군을 이룬 창천거리의 멋진 새집을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잠 못이룰 때 문강순영웅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고 한다.

나의 이 행복한 모습을 어머니가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제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신혼살림을 편 그의 집에 찾아오신 것이었다.

딸의 집에 찾아온 친정어머니처럼 방바닥에 허물없이 앉아서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집을 받았다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시며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정을 담아 물어주실 때 영웅은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날 몹스 사랑의 축배잔까지 부어주신 자애로운 어머니.

경애하는 그녀의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어린 새집들이선물을 쓸어보내고 또 쓸어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웨치었다고 한다.

《나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사는 이 나라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의 분출이다.

백발의 로교수 김조심선생의 삶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김광수, 조규복, 전해영, 리분희, 김유주 등 공화국인민이 사랑하는 유명한 독창가수들을 많이 키워낸 그의 나이는 어언 90살이다.

볼비썩아지는 화선지에서 입은 락바상의 후파로 것처럼 사랑했던 예술무대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 나라의 성악인재후비들을 키우는 교단에 그를 세워준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은 인생의 황혼기까지 진함을 모르는 생의 활력을 부여주고있는 우리 당의 은정넘친 손길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로병대회와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의 뜻깊은 자리에도 그를 대표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환호하는 진행로병들속에서 김조심선생을 알아보시고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건강하라고 거듭거듭 정경이 당부하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그 는 그때 마음속에 뚫어넘치는 격정을 터치었다.

《원수님, 원수님은 우리모두에 게 지킬 줄 모르는 생을 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에 죽어서도 빛나는 삶을 안겨 주는 영생의 품이다.

지금도 못잊을 5월에 인민의 추억속에 강렬하게 새겨진 또 하나의 숭엄한 화폭이 떠오른다.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불멸의 공훈을 세운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과 영결하던 그날 직접 그의 영구를 메시고 국가장악장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죽어도 잃지 않는 영생의 순결을 부어주시듯 고인의 유해우에 자신의 손으로 한층한층 흙을 얹어주시고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진정 참을길 없으시어 그의 묘비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러며 인민은 만물에 생을 주는 태양의 열을 지니신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 당중앙트락에 운명의 피를 이은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의 삶은 영원히 빛난다는것을 눈물속에 더

깊이 절감하였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령도자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시고 사려깊은 위대한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받드시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신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은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로 부르며 따른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를 비롯하여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시대의 명곡들, 령도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천만자식의 고백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비롯한 친만자식들은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러 다함없는 호모의 노래, 심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터친다.

... 어머니 어머니 영원히 영원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본사기자 리경월



온 나라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셔야

어머니날을 제정해주시어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앞에 몇몇이 내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온 나라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이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흘러넘치곤 한다.

어머니날을 맞으며 축하공연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어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즐겨맞는 이날에도 가슴뜨거운 사연이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50(1961)년 11월 16일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녀성들이 어머니로서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이 력사적인 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시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역세게 떠밀며 나라의 미래를 안아주시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시었다.

하여 2012년부터 해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사랑과 정, 끝없는 헌신으로 자식들을 키우며 사회주의조국을 만들어가는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어머니날에 찾으신 수산사업소

주체105(2016)년 11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5월27일수산사업소를 찾으셨다.

그날은 어머니날이어서 온 나라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서 존경과 감사의 꽃다발을 받으며 기쁨에 겨워하고 초소의 병사들도 교향하는 어머니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있던 날이었다.

바로 그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대풍이 든 이 사업소에 찾아오신것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이를 따라서는 데 혁명사적교양실과 문화회관을 거쳐 야외화랑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금 부두에 와닿은 사업소의 어느한 고기배에 몸을 오르신것이다.

일군들은 서둘러 그이를 따라섰다.

선창에서 도루메기를 퍼올리는 작업모습도 보여주시고 화랑에서 물고기목포 쏘아지는 광경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분에서 현재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오늘 아침 그 보고를 받

본사기자

사랑받아 지어주신 이름들

《 옥류 아동병원 》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옥류아동병원이 자리잡고있다.

옥류아동병원은 평양산원앞에 건설된것으로 하여 마치도 두팔 벌린 어머니의 품으로 행복에 넘쳐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의 모습을 련상케 한다.

병원의 외부도 특색있지만 내부는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러진것으로 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온 아이들이 발길을 떼지 못하여 어머니들이 《행복한 걱정》으로 맘을 빼야 한다.

바로 이곳에는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병원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과 운영문제에까지 깊이 마음써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깃들여있다.

주체102(2013)년 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동병원을 지을 자리를 평양산원주변에 잠잠대 대해 말씀하시면서 설계를 아동병원만이 나게,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해 7월 장마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 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당에서 마음먹고 건설하는 병원인것만 큼 건물바깥벽부터 멋있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과 같은 중요병원들에는 구급환자들을 후송할수 있는 직승기차장도 예견할데 대하여서와 아동병원에 놓을 비품을 최상급으로 갖추어놓을데 대한 문제 그리고 승강기실도 잘 꾸러미데 대한 문제 등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심하시며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주체102(2013)년 10월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다는 의미에서 《옥류 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그분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미술대학이 위주구 되어 평양시안의

미술헌작가관들과 함께 아동병원에 그림장식을 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깊은 밤을 지새우시며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자료들을 한결한결 다 보아주시고 친히 그 그림자료들을 내려보내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례사랑에 떠받들려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로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아동의 로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옥류아동병원의 중앙홀에 들어서면 꽃잎모양의 각종 색조 명동들이 은은한 빛을 뿌리며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듯한감을 주고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마

우겟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눈앞에 확 안겨오면서 이 땅은 어디를 가나 아이들의 왕국임을 직관적으로 강하게 시사해준다.

보다 이채로운것은 《유치원교양실》, 《소학교실》, 《중학교실》이라는 간판을 단 교실들이 아담하게 꾸러져있는것이다.

림남철

일민한 어린이들은 병력서에만 이름이 오르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러진 이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동시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그 어디이건 학교가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공화국의 훌륭한 교육제도를 보여주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병치료도 받고 교육도 동시에 받고있는것이다.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에 떠받들려 옥류아동병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랑의 집으로 우뚝 솟아있다.

리남철

수필

강물우에 비낀 두 제도

자거리와 창천거리의 초고층아파트들, 현대미를 자랑하며 멋들어진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특색있는 모양의 과학기술전당과 옥류관이며 류경원, 인민 야외빙상장의 독특한 모습도 한말 영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였다.

그런가 하면 밤길도둑 인민들의 행복넘친 물결이 끓끓졸졸 흐르는 룡라인민유원지와 종합봉사선《무지개》호도 대동강물결우에

니 언젠가 어드난 출판물에 실렸던 남조선의 한강에 대한 기사가 문득 떠올랐다.

남조선의 한강에는 《자살에 방다리》라는것이 있다고 한다.

절망과 비판속에 생의 막바지에서 해마다 불행과 고통을 더는 건달수 없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한강이라고 한다.

다리우에서 깊은 한강물속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미껴있다.

정녕 대동강은 자기의 기슭을 따라 졸비하게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행복넘친 인민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고 유유히 흐르고있다.

깊어만지는 생각속에 금물결 끓끓이는 대동강을 바라보노라

사진처럼 또렷이 새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앞날에 대한 절망과 비판끝에 자살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부익부, 빈익빈에 찌들대로 찌들고 인간천시, 인간중모로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사회의 참혹한 모습뿐이다.

남조선의 호화주택들과 별장, 각종 시설들은 모두가 근로대중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한중도 안되는 특권계층들을 위한

것이며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것이다.

대동강과 한강의 물결이 사진처럼 또렷이 새긴 판이한 두 현실.

대동강에 비견것이 인민대중이 주인된 사회주의제도의 진보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도라면 한강에 비견것은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몰락의 필연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흥분속에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나의 귀전에 유정한 물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무심한 물결도 행복한 모습만을 담아가는 《사진기》로 또는 불행한 모습만을 펼쳐보이는 《투영기》로도 될수 있다고.

나는 대동강 푸른 물결에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처럼 담아보느라 여념이 없는 손자, 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보았다.

박성일

《우리의 문화, 우리의 멋이 제일이다》

◎ **상황을 이룬 《여성옷전시회-2022》** ◎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얼마전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여성옷전시회-2022》가 진행되었다.

전국의 옷생산단위들, 각지 양복점들을 포함한 540여개의 피복생산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는 매일과 같이 수많은 관람객들로 흥성이었다.

계절에 따라 나이와 몸매, 기호에 맞게 시대적미감과 민족적인 형식을 배합하면서도 우아한 세련미를 살려주는 밝고 부드러운 색깔의 달린옷, 양복, 외투 등 다양한 계절옷들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시회장을 딱 채우다싶이 한 옷제품들은 그 형태와 색깔, 재질 등 개성이 뚜렷한 것으로 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공화국여성들의 옷차림문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중구역 류성동에서 사는 김영희씨는 《소문을 듣고 전시회장에 달려왔는데 감탄할 뿐입니다. 옷제품이 수천가지나 되는데 모양도 색깔도 각이하니 어느 옷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멋이 제일입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여성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에서 오는 각종 형태와 색깔의 계절옷을 출품한 은하무역과 봉화무역, 료라도무역의 전시대는 류달리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었다.

료라도무역의 한 일꾼은 《이번 전시회에 우아한 색깔과 형태의 계절옷에 소나무, 울밀대과 같은 민족적색채가 짙은 풍경을 화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식의 독특하고도 새로운 양상의 옷제품들을 출품하였는데 이런 옷제품들이 우리의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게 될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짠 천으로 만든 옷제품에 대한 호평이 자자했다. 경공업성전시대를 찾은 관람객들은 다종다양한 계절옷, 실내옷 등 피복제품들이 국내에서 짠 천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색깔이 밝고 형태가 새로우며 질이 좋으니 그럴만도 했다.

김정숙평양직공장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과 견직공장에서 비단천으로 만든 갖가지 형태의 실내옷들을 놓고 관람객들은 우리가 짠 천으로 만드니 정말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전시회에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는 새로운 화장품들도 출품되었다.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향료공장에서 여러가지 화장품들과 향기유한 천연향료제품들을 내놓았는데 인기가 높았다. 창령화장품생산소에서 출품한 로화방지젤, 로화방지

살결물들도 중년여성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이 제품이 개발된지는 얼마 안되지만 제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수요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시회장이 하나의 큰 경험교과판마당이고 기술교류공간이다.》, 《여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옷차림을 적극 보급하며 심신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니 정말 좋다.》...

이런 목소리들은 전시회장에서서나 울리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피복전문가들이 찾아온 옷도안자료를 궁극적인 흥성이는 전시회장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켰다.

특별히 이채를 띤것은 중강현실거울에서 다양한 옷형태와 함께 가방, 신발과 여러가지 기호품들의 조화로운 완성이 실감할수 있는 가상현실공간을 제공하는 중

강현실거울앞에서 사람들은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자기의 몸매와 취미에 맞는 형태와 색깔의 옷을 골라 《입어볼수》 있었다.

예산시 헤명양복점 책임자는 《모든 전시대들을 돌아보면서 우수한 옷제품들을 출품한 단위들의 경험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특히 평양시에서 내놓은 옷제품들이 편리성과 미학성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선 단위들을 따라야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국의 피복생산단위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여성옷의 발전추세와 현대적미감에 맞는 옷차림을 적극 장려하고 보급하며 심신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여 나라의 피복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활발히 진행된 과학기술발표회

— 앞선 기습, 성과를 토의일반화 —

의료기구부분 전국의 의료기구부분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의료기구협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의료기구의 국산화, 현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의료기구의 국산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현존의 의료기구의 믿음성과 안정성, 리용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상방역부분, 의료기구부분, 의료용품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 과학기술발표회에는 나라의 방역태세를 튼튼히 다지고 현대적인 의료기구와 의료품의 개발과 생산, 국산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100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세포공학, 생물기술 등이 도입된 첨단수준의 의료기구제작에 관한 혁신적이며 기발한 가설 및 착상들도 발표되었다.

기상 및 해양부분 전국기상수문 및 해양부분 과학기술발표회, 학술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기상수문학회, 조선해양학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기상분과, 수문분과, 해양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과학기술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기상수문국,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를 비롯한 1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100여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폭우, 많은 비 예보경정의 수립, 도플러기상레이더의 개발, 강수세기와 삼두세기를 고려한 강수순살량계산방법의 적용, 가설물자루해안방파제의 설계와 건설 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연구제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건설부분 전국건설부분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건설국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과학기술발표회에는 평양건축대학, 평양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산악협곡도시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락식살림집건축계획에 대한 연구》, 《80층초고층살림집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위생난방설계에서 건축정보모형화기술의 적용》 등의 제안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기간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솟아난 송화거리와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의 설계경험발표회가 있었다.

수소에너르기부분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수소에너르기학회의 주최로 전국수소에너르기부분 과학기술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과학기술발표회는 수소에너르기리용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 이전하며 수소에너르기체계의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학술적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수소에너르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박사원생, 대학생 등이 참가한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현시기 절박한 에너지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논문들이 심의, 발표되었다.

본사기자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가정

사경에 처했던 어린 생명을 위해

어디서나 울리고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다. 환자에 대한 뜨거운 정성! 온 나라 인민이 한가정, 한식물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가정, 생사기묘에 처한 환자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화국의 의료일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그 부름에 비껴있다.

얼마전 재령광산병원의 앞마당에 많은 의료일꾼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귀여운 아들을 안은 한 여성이 나타났다.

이들을 바래우는 최성철

원장을 비롯한 병원의료일꾼들의 뇌리에 못지 않은 일로 전신 48%의 2~3도 화상을 당한 4살 난 어린이를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화상을 당한 환자의 병세는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시시각각 마지막계선으로 접근하는 생명지표, 화상성 쇼크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위독한 상태가 병원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의 긴장한 눈빛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즉시에 진행된 협의회는 분위기는 매우 팽팽하였다. 박순만 외과과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렸다.

《물론 소생의 가능성은 1%도 안됩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짊어지다 바치려는 열사부부의지만 있으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에 참가한 병원일꾼들의 심정도 그와 같았다.

재령광산병원의 의료일꾼들은 환자가 당한 불행을 자기 친자식, 친혈육이 당하는 고통으로 간주하고 어린 생명의 소생을 위한 치료에 들어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아직 엄마뱃속에 모르는 애 어린 환자를 놓고 진행하는 치료였기에 그 긴장성과 열도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이들은 기존상식이나 경험을 따지지 전에 참된 의료일꾼의 양심과 보건의료으로서의 본분과 도리에 대해 먼저 생각했다.

어른들도 참기 어려운 화상치료를 이날 애 어린 환자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며 친혈육의 마음으로 기울인 뜨거운 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랴.

환자의 나이와 화상당한 부위로 보아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높았지만 의료일꾼들의 높은 의술과 정성으로 하여 화상치료에서 넘지 않은 안될 위험한 고비들은 하나하나 순조롭게 극복되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부담을 묵묵히 이겨내면서도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료일꾼들앞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한두번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언제인가 담당간호원이 박순만 외과과장을 찾아왔다. 《파장선생님, 환자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을 때면 막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의

엄마가 되어줄수는 없을까요?》

치느간호원의 음성깊은 마음에 파장은 목이 격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다음날 의료일꾼들은 갖가지 영양식과 함께 놀이감들을 한아름 안고나오는 박순만 외과과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의료일꾼들에게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 이제 품귀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치료에만 신경쓰다보니 어린 환자한테 진짜 필요한게 없었다 말이에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것, 그것은 약물이나 의술에 앞서 불보다 뜨거운 친혈육의 정이라는것을 이들은 깨달았다.

이런 그들이었기에 많은 의료일꾼들이 환자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던것이다.

퇴원을 앞두고 환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절절히 토로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어 친어머니도 출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 아들이 받아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김혜성



인간의 생명은 의사를 품는다

남조선에서 의사들의 말을 쓴자 들이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놓고 상상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단적인 실례가 남조선의 보건부문에서 성행하고있는 《유명수술》이다. 일명 《대리수술》이라고 불리는 《유명수술》은 해당 전공의사가 아닌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가 집도하는 의료사기행위를 가리켜 생겨난 말이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유명한 의사를 배세고요란하게 광고하여 환자들을 받아들이고는 실지 수술은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나 애당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의료사기행위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 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클수록 환자에게 쓰는 돈을 아끼기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료사기행위는 주로 병원이 리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인것이다.》

이러한 의료범죄행위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놓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 환자를 위한 정성을 바란다는것은 썩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것과 같은것이다.

본사기자

시 주었다. 진통제를 투여하면 편안해질수 있는데 진통제값 몇푼을 아끼려고 싫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의료사기행위는 주로 병원이 리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인것이다.》

이러한 의료범죄행위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놓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 환자를 위한 정성을 바란다는것은 썩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것과 같은것이다.

본사기자



— 남조선에서 —

수술실 환자가 의사를 못보게 하라

이것은 남조선의 보건부문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의 일단을 불과하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폭로하였다.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주제34(1945)년 11월 28일 아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계시는 역전러판으로 신의주그리스도교 청년회 회장이 찾아왔다.

그는 전날에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상공인들과 종교인들의 정당인 사회민주당 대표로 연설을 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신의주에 와서 교인들을 벌써 만나본다는 것이 오늘에야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어찌 있는 군중대회에서 환영사까지 하여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처하에 감동할 수 없었으며 회장은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께서 《천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근심을 끼쳐드린 신자들의 죄가 많다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그에게 자신의 열자리를 권하고 신의주의 형편에 대해 물으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감동된 그는 어려움도 있고 자신이 보고 느낀 감정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다.

회장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지금 일부 교인들속에서 공산정권이 서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자기가 걱정하던 문제를 솔직히 말씀하셨다.

당시 신의주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신봉하고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의지까지할데 없던 도시소시민들과 농민들로서 행어나 죽어서라도 《천당》에 가서 《복락》을 누릴것을 바라던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를 믿는것은 누구나 다 자유입니다. 신자들은

하늘을 믿어도 미국의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야 나라도 해방되었는데 무엇때문에 미국의 하늘을 믿으면서 조국땅에 또다시 양키들을 끌어들이겠는가, 미국놈들은 세게도처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학교와 병원, 레베랑을 차려놓고 《자선》을 베푸는척 하면서 종교를 침략과 약탈의 도구로 리용하였다. 미제는 지금도 38°선이남을 강점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우리 인민의 창의를 위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해버렸다고 하시었다.

회장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진심으로 감복하여 자신은 신학자로 하시며 하느님을 믿어 천당을 가서 복락을 누려야 한다고 설교는 많이 하였지만 종교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이제야 종교의 참뜻과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제 나라에서 제법을 믿고 제법에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러면 종교적인 리념을 표방하는 시간에 오직 자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우에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회장은 잘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네 신자들은 오직 장군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의하시었다.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으라고 하시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교시는 오늘도 우리 계세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참다운 애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여준다.

박철우



—총련중앙단체, 사업체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총련중앙단체, 사업체결기모임이 지난 10월 12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총련의장과 박우호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 각 부의장들,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의 국장들, 간도지방 총련본부위원장과 중앙단체, 사업체 일꾼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고 박우호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이 모임을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주신 력사적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열정과 결의를 안고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인데 대하여 언급하고 강령적서한관철만이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증침되는 난관속에서도 총련과 제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를 담보하고 조국과 보초를 맞추어 힘있게 전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단체, 사업체들의 사업이 각별히 중요하며 모든 단체, 사업체들이 어떻게 분발하고 혁신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등의 성명과 투쟁을 당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절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그리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앞에 미국과 남조선호전정당들의 전쟁대결책동은 풍지박산나고 전쟁국면으로 치닫된 위협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게 되었단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 다시 되찾은 평온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전막강한 군력과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군이 호수에 이복될수 있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정당들의 전쟁대결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적의 총대로 단호히 짓밟아버리는것은 어제 오늘도 그리고 매일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모든 분야에서 총공세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은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도와 동포들의 행복, 후대들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실천적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는 총련의 단체, 사업체들이 애국애군운동의 모든 전선과 모든 분야에서 서한관철투쟁을 일제히, 총공세로 벌려나갈것을 결기해나선데 이번 모임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그 위력을 과시해올수 있는것은 총련중앙으로부터 분회에서는 각각 조직들을 점진하게 갖추고있을뿐 아니라 주력군과 새세대, 중년세대들을 묶어올수 있는 계층별단체들과 민족교육사업을 비롯한 애국운동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단체와 사업체들을 다 포괄한 명실공히 총련합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는것은 계층별단체들의 일관한 사업이며 권익옹호와 민족교육사업, 경제사업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력량을 발동하여 동포들에게 실리를 주는것은 단체, 사업체들이 지닌 본신임무라고 하면서 그는 제일조선인운동이 어려운 시련을 겪은 력사적나날에 단체와 사업체들이 애국애군운동을 창조할이 없이 과감히 벌려나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긴장한 정치군사정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백년 싸워 백년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강인한 의지로 서한관철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할수 있는 사업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총련의 중앙단체, 사업체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기모임을 가지는것은 총련의 력사상 처음되는 일이다. 이번 결기모임은 총련중앙과 현부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 중앙단체와 사업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에 과감히 떨쳐나서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최진욱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12)

전쟁점경의 8월사태를 형성하여



2015년 8월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리는 남조선호전정당들의 악랄한 대결소동은 국도에 달랐다.

남조선호전정당들은 무력적이고 군사분계선 서부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지뢰폭발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재개하였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베라살포 행위를 감행해나섰다.

반공화국심리전방송과 베라살포행위는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대결선언이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8월 20일 남조선호전정당들에게 48시간안으로 재개한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을 전면철폐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에 넘어간다는것을 최후통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방패들은 8월 20일 오후 공화국이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으로 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는 잇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신성한 공화국의 령도에 수습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행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거이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범죄적책동이였다.

조선편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발표하였다.

보도에서는 조선편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는것과 남조선군부호전정당들이 격노한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장병들의 보복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런이어서 20일 밤에 긴급히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진상태로 이전하며 전진지대에 준전진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남조선군부호전정당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적행동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전선으로 급파되었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에 적대세력들은 혼비백산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 예상치 못한 공격방법으로 미국을 놀라게 할것으로 보인다.》고 비

명을 지르며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미2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는 등 겁에 질려 떨었고 미국상선을 믿고 날뛰던 남조선호전정당들도 무릎 꿇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중단하는 등 군사적대결소동을 걷어치우겠다는 문전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절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그리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앞에 미국과 남조선호전정당들의 전쟁대결책동은 풍지박산나고 전쟁국면으로 치닫된 위협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게 되었단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 다시 되찾은 평온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전막강한 군력과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군이 호수에 이복될수 있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정당들의 전쟁대결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적의 총대로 단호히 짓밟아버리는것은 어제 오늘도 그리고 매일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사대와 외세의존은 수치와 파멸의 길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건지하지 못하면 자유와 독립을 지킬수 없고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새긴 교훈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초 십나라오랑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았던 안된것은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와 외세의존정책과도 관련된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쫓겨든 채든 봉건통치배들은 날로 쇠퇴해가는 국력을 추세를 생각은 하지 않고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에 의존하면서 나라를 보존하고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하여 조선을 둘러싼 령강들의 각축전이 더욱 심해지고 중앙에는 대포와 합선을 끌고온 십나라오랑캐무리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운명을 안다되었다.

조선의 하늘에 망국의 비운이 절절 드리운 그때 도와나선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20세기초 조선의 비참한 운명은 세상에 믿을것은 자신의 사회적존재가 없으며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차례지는것은 필연코 망국이요 망국노의 운명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수치와 파멸의 길이라는것은 남조선의 어제와 오늘이 더욱 잘 말해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 《정권》은 있다고 하지만 자주권은 없다. 군데에 대한 통수권도 미국이 쥐고있고 경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자원, 판매시장에 의존되어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도 외세의존과 굴종사상이 지배하여 사회에 침투한것은 역사외래의 참담문화 등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치욕을 강요당하였는가.

세상을 경악시킨 동두천 너인살발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매항리폭탄투하사건과 두 녀중학생학살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처참한 범죄사건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제침략군은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그러하면서 도 불명정적이고 예측적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대매국에 이골이 난 남조선통치배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여지없이 짓밟으며 제세상처럼 날치는 범죄집단인 미제침략군에 해마다 《방위비반담금》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액수의 혈세까지 섬겨버치는 쓸개빠진것도 서슴치 않고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차례진것은 무엇인가. 미국에 자금을 투자한 남조선대기업들이 거꾸로 손해를 보고 미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에 드는 막대한 자금부담과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데 대한 압박만 받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역적매국은 민족의 천년속적인 십나라족속들에게 아무 굴종하며 우리 계에게 저지른 일본의 대타협을 덮어주는가 하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일본것들과 독도주변 같은 전쟁영역을 벌리는것과 같은 쓸개빠진것도 서슴치 않고있다.

그럼수록 일본것들은 로골적으로 역적매국을 《동생》 취급하면서 과거사문제와 《독도명령권》 문제,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 등에서 더욱 오만하게 놀아내고있다.

윤석열역적매국의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책동에 의해 남

조선은 예측과 파국의 진멸에 날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남조선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 치욕과 비극은 더더욱 증대되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 민족의 운명을 망치는 길이라면 자주, 자존은 나라와 민족의 강성과 번영의 길이다. 이것은 자주, 자존을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공화국의 자랑한 력사가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이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기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 일떠서게 되었으며 제국주의림합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 방해책동을 짓부셔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예측과 망국의 길이며 자주, 자립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기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 일떠서게 되었으며 제국주의림합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 방해책동을 짓부셔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예측과 망국의 길이며 자주, 자립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기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 일떠서게 되었으며 제국주의림합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 방해책동을 짓부셔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민족의 구성원이 된 금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 고베조선고급학교에는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졌는 취주약소조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소조는 애국의 열정이 솟아올라게 하는 힘있는 행진곡들을 연주하여 동포들을 고무하였다. 연주회가 진행될 때면 지역 동포들은 물론 도표 등 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중앙예술경연대회에서 금

애국의 힘찬 행진곡을 울리며

상을 수여받은 취주악합주 《달려가자 미래로》는 늘 관중의 절찬을 받는다. 민족의 대를 곳곳이 이어가려는 학생들의 역센 의지가 안겨온다고 하면서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연주모습을 본 외국인들도 말한다. 조선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기다려지는 수업

《조국찬가》, 《조선민족》, 《조선신보》... 이 학교에서 힘을 넣고있는 서예수업은 어린 학생들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새겨주

는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수업지도는 고려서예연구회 상임리사가 맡고있다. 그는 뜻과 획의 예술인 서예는 민족적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늘 말하곤 한다.

학생들은 하나의 글자, 한 개의 점에서도 심오한 뜻과 사상, 아름다운 민족성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하루하루 자기들의 붓글 솜씨를 늘려나가는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누구나 서예수업을 즐겨 기다린다.

본사기자

전쟁불뭉치를 들고 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북침흥계를 가리우기 위한 《방어》타령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끝나기 바쁘게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또다시 운운하면서 《2022 태극연습》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공화국의 경고에 대한 전연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범적죄명이다.

역적패당이 벌여놓은 《태극연습》이 북침전쟁을 가상하여 벌이는 대결적이고 침략적인 군사적행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호전파들이 《합륙강연습》이라는 극히 도발

적인 명칭으로 친구공전연습을 벌여오다가 그 호전성으로 하여 내외의 규탄배격을 받고 《태극》으로 명칭을 바꾸어 훈련을 강행하고 있는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역적패당은 저들이 벌여놓은 이번 《태극연습》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년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성격》연습이라느니, 병력과 장비의 동원 및 기동훈련이 없이 지휘소에서 하는 훈련이었다느니 하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전쟁연습의 목적과 성격이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제 밖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그것이 어떻게 《방어적

훈련》으로 될수 있고 그 도발적기도가 달라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역적패당은 《2022 태극연습》을 하기 전에 미국과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면서도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이 공중전연습이 역대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시연회, 핵전쟁에비연습이라느니 어지없이 날뛰는 드러났다.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5015》에 따라 벌리는 《태극연습》도 조금도 다르지않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태극연습》과 관련하여 《방어적》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그것을 명분으로 내

세우는것은 구차하다. 《태극연습》을 강행하는 리유는 《대북자극》이다. 전쟁연습은 결코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2022 태극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강행하는 전쟁연습들은 어느것이나 다 공화국을 《주적》으로 삼고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임의의 순간에 실천으로 넘어갈수 있는 북침에비전쟁이라는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평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한사코 북침전쟁의 불을 지피려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흉심

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을 잃고 날뛰는 대결미치광이들,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제국을졸도 모르고 설치는 일간이들의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하다.

공화국은 이미 윤석열 《정권》과 군부강패들이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작태를 이어간다면 사상 가장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북침전쟁광란이 가져올 파멸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각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대규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초강경군사작전에 걸친 윤석열역적패당이 《대북보복무력시위》라는것을 벌여놓았다가 망신만 당하였다.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대규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초강경군사작전에 걸친 윤석열역적패당이 《대북보복무력시위》라는것을 벌여놓았다가 망신만 당하였다.

지난 11월 2일 윤석열역적패당은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공중대시상미사일과 공중대지상정밀유도폭탄을 조선동해의 해상분계선 북쪽의 공해상에 발사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리고는 어용언론들을 동원해 《정밀 타격할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과시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그마저도 망신거리로 되었으니 입만 벌리면 북에 대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막강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객기를 부리던 윤석열역적패당이 참관하게 되었다.

단 평

스스로 드러낸 패배상

남조선언론들이 《총체적난국상에 처한군의 대비태세》, 《구명단 대북보복무력시위》라며 윤석열역적패당을 야유조소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엉당하다.

역적패당이 떠드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대응체계》의 실상은 바로 이런것이다.

스다버린 파멸과 같은 무기들과 미국의 대포발에 불과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군사강국과 엇서보려 하는 역적패당의 망동이야말로 삶은 소대거리도 양천대소할 회대의 정치판화이다. 차라리 《대비태세》니, 《무력시위》니 하며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저들의 취약성을 가리울수라도 있었으련만...

배영일

선제공격을 노린 전쟁모의판

이번 협의회에서 이른바 《북핵사용세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적제수단운용연습》을 년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확장적제수단운용연습》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도발정후》에 대응한다는 명목 밑에 벌리는 공화국에 대한 핵탄핵타격시연회이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그 무슨 《의혹》이니, 《징후》니 하는 구실을 붙여 침략행위를 일삼고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도 그러한 상투적수법으로 그 누구의 《핵무기사용징후》를 구실로 핵전쟁도발화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미국이 이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기도에 제국을졸도 모르고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는 어리석은 대결미치광이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모한 무력사용기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상전과 함께 북침전쟁도발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더우기 조선반도에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들을 빈번히 들이밀고 핵전쟁행동에 광분하는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다.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제창하는것은 철천귀의 극치이다.

오늘의 사내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자, 교란자도 다름아닌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것이다.

며칠전 미국의 워싱턴에서 제54차 남조선미국 《안보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또다시 판에 박은 이른바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남조선미국연합훈련실시문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확장적력력실행제고, 《한미동맹》강화, 전사적전통체전환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발사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운용하여 남조선에 확장적력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의 재확인과 다음해에 합동군사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의 19개 조항으로 된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로서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예측 불가능한 최악의 위험계선으로 더욱 바짝 몰아가는 무분별한 판타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인플레이션폭발》을 내놓는바탕에 뒤늦게나마 언어맞다고 한다.

그런데도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번어리 땀가슴 앓듯하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렇듯 민생과 경제가 최악중의 최악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무기수입 등에는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 친미친일사대대국정책일변도로 하여 조선반도인의 긴장만 격화시키고있으니 남조선 각계층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죽게 되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살아가기가 어떻게 힘든것은 없었다고 절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요한데 상진인 가을. 그러나 이 가을에 남조선 각계층에게 차려진것은 날로 늘어만가는 채무액, 천정부지로 뛰어나가는 물가, 가중되는 리자부담, 시시각각 커만 가는 전쟁위험뿐이다. 빚더미에 짓눌리고 민생고에 에라들고 전쟁위기에 두근거리는 남조선민심의 허탈한 가슴속에는 한숨만 가득 차있어 그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누구라 할것없이 한숨만 내쉬는 《한숨가을》이 아니겠는가.

한숨이 쌓이고 쌓이면 원한이 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

이제 민심의 울분과 원한이 맺힌 《한숨가을》은 역적패당의 파멸을 선고하는 분노의 되서리, 정의의 폭풍을 몰아올것이다.

박진홍

최근 일본이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소통》의 손을 내밀고있다.

현재 일본조야에서는 남조선과의 주요갈등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쌍방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서울에 기여들어서 쌍방관계개선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입장을 타진해보았고 일본수상 또한 남조선선일본 《의원련맹》합동총회에 보면 《축하연설문》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삼나라족속들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면서 《진밀한 소통》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대해 윤석열역적패당이 환성을 올린것은 물론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결코 저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

에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린 수확의 계절, 단풍의 계절로 불리워왔다.

이 계절에 사람들은 온한해 맘껏려 가꾼 풍성한 곡식과 함께 1년로동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하지만 이해의 가을 남조선의 풍경은 한산하기만 하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와 금리, 환율폭등이라는 《3중고》로 사람들에게 들춰진 극심한 생활난이 좀처럼 가시질줄 모르기때문이다.

현재 남조선가정들의 채무액은 1조 5,500억US\$이며 전체 가정의 70% 이상이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농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러하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이라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보기 딱할 정도이다.

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폭락하여 4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비료값은 150%, 영농자재값은 38%, 로터비는 70%나 올라 농사지는 쌀을 다 팔아도 영농비를 보상할수 없는 지경이다.

당국자라는것들이 가격상승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저축한 쌀을 수요이상으로 시장에 풀었기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했다는것이다.

입만 벌리면 《경제》와 《민생회복》에 대해 떠들어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다는것이 전부 이리하다.

역적패당이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0억US\$를 넘겨바치기로 했지만 상전이 《반도체지원법》,

《한숨가을》

《미래지향》

《과거지향》

《미래지향》인가, 《과거지향》인가

《미래지향》인가, 《과거지향》인가

《미래지향》인가, 《과거지향》인가

《미래지향》인가, 《과거지향》인가

《미래지향》인가, 《과거지향》인가

락랑 박물관을 찾아서 (4)

락랑문화시기의 발전된 제철제강기술

락랑문화시기의 무기장구류들이 전시된 구획을 돌아본 우리는 이어 마구 및 수레부속품구획을 돌아보았다. 남경희책임강사가 우리에게 락랑문화시기의 마구 및 수레부속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다.

남경희책임강사는 당시 수레의 명에는 식물무늬, 네모무늬, 타래무늬 등 여러 가지 무늬들을 조화롭게 배합하고 옷칠을 하여 장식

하곤 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또한 락랑문화시기 유적들에서 발견된 철기, 철로 된 수레부속품들과 은물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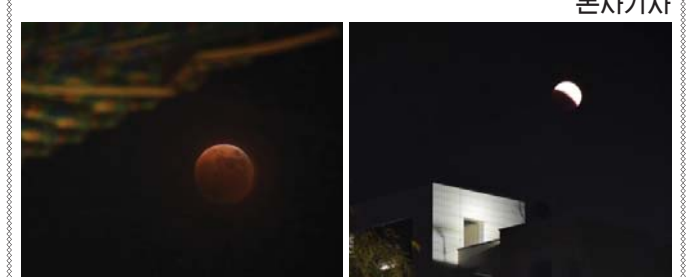
제철광산에서 생산되는 자철광의 화학조성이 거의 같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것을 만든 원산지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밝혀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운성리무덤에서 발견된 수레골대끝단 농고보아도 탄소가 흑연형태로 포함되어있는 회색주철인데



완전월식현상 관측

공화국에서 11월 8일 저녁 완전월식현상이 관측되었다. 국가과학원 평양천문대 연구사들의 통보에 의하면 완전월식은 평양지방에서 18시 9분경에 시작되어 21시 49분경에 끝났다.



공화국 각지에서 젓제품생산토대 강화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각지에서 젓제품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경쟁력을 고조시키고있다. 황해북도에서도 사리원어린이식료품공장에 능력이 큰 신젓생산공장을 꾸려놓아

도의 일꾼들은 자체의 생산토대와 과학기술력향에 의거하여 신젓생산용 가루젓산균생산기술을 확립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4.25 체육단 력기감독 계성일. A portrait of a man in a white and red uniform, identified as the coach of the 4.25 Sports Team.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의 첫자리에는 4.25체육단 력기감독인 공훈체육인 계성일이 올랐다.

의 하루하루를 예극의 땀방울로 이어갔으며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세계의 하늘가에 람호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릴수 있는 훌륭한 력기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참가하여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 각각 1위를 쟁취함으로써 종합 1등으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넉리 리용되는 고효능천연식물활성제 《진심》

공화국의 진심천연기능성제품공장에서 생산한 고효능천연식물활성제 《진심》이 농업부문에서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고효능천연식물활성제 《진심》의 효과성은 많은 단위들에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논벼뿐만 아니라 강병이, 밀, 보리, 콩, 남새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에서도 다름없었다.



무우에는 여러가지 비라민과 농마, 단백질분해효소와 같은 소화효소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열을 내리게 하므로 감기치료에도 쓴다. 무우즙 한술잔을 끓인 물 2잔에 섞어 다시 끓인 다음 소금을 약간 넣어 하루 한번

에 먹든가 무우즙 10ml와 물 100ml를 한데 섞어 하루 3~4번 더운물에 타서 먹는다.

속담과 뜻

◆ 먹은 먹으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한다. 자기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좋은 사람에겐 역시 그렇게 좋게 대하고 자기를 해치려는 침략자나 적에게는 원

수로 대하라는 뜻으로서 상대측이 취하는 립장과 태도에 따라 그에 맞게 립장과 태도를 취하라는 말.

◆ 짚은 지은데로 가고 먹은 닭은 닭으로 간다. 나쁜짓을 한 사람은 해당한 벌을 받게 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두고 비유 이르는 말.

연암동과 박지원 (5)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열하일기》는 나오자마자 연암의 제자들은 말할것 없고 청년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면서 읽혀졌다.

《연하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서 연암의 산어박남수의 집에 있는 벽오동청이라는 정자에 여러 제자, 친지들과 함께 모여 놓고있었다.

《연하일기》가 한창 넉리 읽히고있던 어느 달밤은 날 저녁이었다. 연암은 산어박남수의 집에 있는 벽오동청이라는 정자에 여러 제자, 친지들과 함께 모여 놓고있었다.

《연하일기》가 한창 넉리 읽히고있던 어느 달밤은 날 저녁이었다. 연암은 산어박남수의 집에 있는 벽오동청이라는 정자에 여러 제자, 친지들과 함께 모여 놓고있었다.

《연하일기》가 한창 넉리 읽히고있던 어느 달밤은 날 저녁이었다. 연암은 산어박남수의 집에 있는 벽오동청이라는 정자에 여러 제자, 친지들과 함께 모여 놓고있었다.

